보도자료

담당	외교비서관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6월 3일(월)

윤석열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 개최(6.3 오후)

-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 하 아프리카와 상생협력 추구 -
- 우리 기업의 대아프리카 사업 참여 기회 증진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3, 월)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필리프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 카를루스 마누엘 빌라 노바(Carlos Manuel Vila Nov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기니비사우 대통령, 조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José Maria Pereira Neves) 카보베르데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상생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대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지고, 아프리카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이들이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모잠비크) 윤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뉴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앞으로 양국이 화석연료를 넘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뉴지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모잠비크에 계속해서 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이 모잠비크 경찰의 치안 교육을 맡아달라는 뉴지 대통령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상투메프린시페) 윤 대통령은 그간 개발협력과 농업협력이 양국 협력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평가하고, 상투메프린시페가 역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해 상호 호혜적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빌라 노바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상투메프린시페의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가입이 자국 농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 보건, 치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투메프린시페의 풍부한 수자원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수산업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기니비사우) 윤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기니비사우는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높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비즈니스 서밋과 기업 상담회가 양국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엠발로 대통령은

작년 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한국이 특사를 파견하고 의전차량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영농기술, 보건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카보베르데)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모범적인 민주국가인 카보베르데와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네베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교역, 투자,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네베스 대통령은 한국 측이 카보베르데에서 주최한 '자유·민주주의·선정 포럼(4/8)'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에 양국 외교부가 체결하는 협력 MOU를 기반으로 정부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재생에너지, 해양수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카보베르데 내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끝>